

한우협회·한우자조금, 도심 속
야외에서 즐기는 한우 숯불구이 축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11월을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1일, 서울 성동구 소재의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11월 4일(토)까지 열렸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했다.

'한우 숯불구이 축제'는 전국의 10만 한우농가가 조성한 한우자조금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한우 숯불구이 축제 현장에서 한우를 숯불구이로 맛볼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구입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행사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었다. OX퀴즈, 고리걸기, 룰렛 이벤트, 부위별 다트 등을 즐길 수 있었으며, 레크레이션을 통해 부위별 한우세트 경매 및 한우 럭키박스 구입 등도 가능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올해 10 회째를 맞은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1(1등급 이상) + 1(1인분 기준 200g) + 1(1만원대) 숯불구이 행사에 많은 참여와 함께 직장인 등을 위한 화식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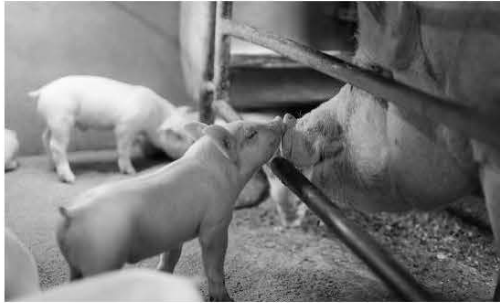
한돈협회, 제40차 대의원 정기총회
제19대 회장에 하태식 씨 선출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월 26일(목) 대전 유성 게 룡스파텔에서 제40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의원 207명중 195명의 투표(투표율 94.2%)를 통해 기호 1번 박호근 후보가 37표, 기호 2번 하태식 후보 92표, 기호 4번 손세희 후보가 66 표를 얻어 하태식 후보를 한돈협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기호 3번 이영균 후보는 투표 전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날 부회장에는 손종서, 서두석, 김정우, 이기홍 씨가 각각 선임됐으며, 이사는 이준길, 최영길, 배상건, 윤석환, 서승기, 김동진, 이성철, 임성주, 이상희, 정태주, 남기석, 김삼록, 고권진 씨가 각각 선임됐다. 또한 양돈농협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양돈조합연합회장을 협회 이사로 선임키로 하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이상용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을 추가 선임했다. 또한 9개 도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나 손종서, 서두석, 김정우 부회장 선임에 따라 결원이 생긴 경기도협의회장·충북도 협의회장·충남도협의회장·전남도협의회장 등도 새롭게 선임됐다. 신임 하태식 당선자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4년간 (사)대한한돈협회 제19대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돈자조금, '2017 아름다운 농장 돼지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선정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17 아름다운 농장 및 돼지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을 11월 9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과 우리돼지 한돈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한돈산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총 96건의 작품이 응모됐다. 수상작은 총 52점으로 작품성, 호감도, 예술성 등 자체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총 5명의 심사위원의 평가에 의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11월 중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돈자조금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이번 콘테스트 대상의 영예는 '교감'(맹홍주)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너희가 편해야 우리가 웃는다'(임종춘), '한돈가족'(배정훈) 2점이 선정됐다. 이밖에 특선 5점, 가작 19점, 입선 25점 등 대상을 포함해 총 52점이 수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교감'은 현대 삶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과 의미를 돼지를 통해 새롭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한돈산업을 보다 친숙하고 긍정적인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작품이어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유자조금, 이마트와 공동 개최 '제4회 주부 우유 요리대회' 성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마트가 공동 주관한 '제4회 주부 우유 요리대회'를 성료했다.

11월 6일 우유자조금에 따르면 '우유가 돋보이는 요리'라는 주제로 지난달 10월 29일(일) 열린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우리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은 서울, 경기, 경상, 충청, 전라 5개 지역에서 1회씩 사전 실시됐으며 선발된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상은 우유와 아보카도를 접목시킨 '우유를 사랑한 아보카도'를 만든 박미경 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으로는 '우유 탄탄면'을 만든 윤수정 씨, 우수상으로는 '병아리콩 밀크 퓨레 오징어말이'를 만든 최은영 씨가 선정됐다.



양계협회, 전국 양계인 꺾기대회
산란일자 난각표기 의무화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란일자 난각표기 의무화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자 전국 양계농가와 계란유통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를 기입하는 '축산물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난각에 산란일이나 고유번호를 미표시하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들은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계란 위 산란일자 표기 등에 반대하며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가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란일을 기준으로 계란에 표기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산란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일 생산한 달걀이 아닐 경우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며 "달걀산업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식약처 때문에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식약처에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놓고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향후 마련된 TF팀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반드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봉협회, 42차 전국 양봉인의 날
벌꿀축제...5,000여명 참석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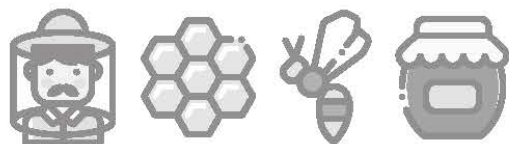


양봉농가의 최대 축제인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가 충남 논산시에서 열렸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군환)는 10월

25일(수)~28일(토) 이틀간 충남 논산시 논산천 둔치 행사장에서 제42차 전국 양봉인의 날 및 벌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양봉인의 날 행사엔 양봉농가와 소비자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첫날인 25일엔 2017양봉산업발전 심포지엄이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또, 양봉인 노래자랑, 양봉인 한마음 줄다리기 등 양봉 농가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계란자조금, '계란페스티벌' 성료 소비자에 계란 우수·안전성 적극 홍보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주최한 '제6회 계란페스티벌'이 11월 1일(수)부터 4일(토)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소비자들에게 국내 계란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계란 소비를 확대키 위해 매년 개최되는 계란페스티벌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전시·체험·이벤트 부스가 마련돼 계란요리 주부릴레이 전시, 계란비누만들기, 계란쌈 만들기, 계란상식 OX퀴즈, 계란 룰렛 돌리기 등 이벤트를 비롯해 어린이 계란 창작뮤지컬, 제3회 대학생 계란소비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산업전시관에는 계란 생산농가, 가공업자, 계란관련 문화업체 등에게 무료부스를 제공, 계란산업의 가치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란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계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완전식품 계란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6대 회장에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선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0월 16일(월)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병규 전 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바로 문정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문정진 회장은 잇따른 가축전염병,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국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넘겨받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입 축산물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문정진 회장도 "축산업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과 이원화된 정부 행정, 축산 강국들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안팎으로 난제가 많다"며 "축산산업의 보호·발전을 위해 모든 단체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